

# 새로 나온 기생충약

任 敬 一

이상적인 구충제(驅虫劑)는 여러가지 기생충에 공통적으로 효과가 있어야 하고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복용하기 간편해야 하며, 특히 집단적으로 투약해야 할 우리나라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 구충제의 값이 싸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맞는 이상적인 구충제는 별로 없으며 새로 개발되어 시중에 나온 비교적 효과가 좋은 구충제를 소개하고자 한다.

선충류(線虫類)에 쓰이는 약품으로 Pyrantel pamoate(필콤, 콤반트린)는 체중 kg당 10mg을 단회 투여로 회충, 십이지장충 등양모양선충에 현저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이 적다. 효능은 반응량으로도 거의

동등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Pyrvinium pamoate(판퀸)는 기본 투여량이 체중 kg당 5mg로써 요충 감염자에 단회투여하면 효과가 현저하며 구역, 구토, 복통등 가끔 부작용이 있으나 극히 경미하다. Stilbazium iodide는 요충 감염자에 체중 kg당 5-12mg을 단회 복용하면 94%의 치유율을 나타낸다. Mebendazole(버막스)은 100mg씩 1일 2회 3일 계속 복용하면 회충의 구충율은 95%이상이며 편충은란음전율(卵陰轉率)이 90%이상이며 동양모양선충에 구충효과가 좋으며 부작용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tramizole은 회충, 십이지장충에 호

과가 양호하며 체중 kg당 2.5mg을 단회 투여한다. Jonit는 십이지장충에 효과가 좋으며 성인에 있어서는 100mg씩 12시간마다 3회 식사후에 복용하며, 현기증, 두통, 복통, 설사 등 부작용이 있으나 일시적이다. Thiabendazole(Mintezole)은 체중 kg당 25mg을 하루 2회 2-3일 계속하면 본선충에 96%, 요충 94%, 십이지장충 77%, 회충 77%의 치유율이 있다고 하며 장기유충미립증인경우 7일 계속 복용한다.

편충류(扁虫類)에 쓸 수 있는 약품으로써 Paromycin(Humatin)은 체중 kg당 15-20mg씩을 하루에 2회 5일간 계속 복용하면 무구조충, 유구조충, 왜소조충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 Yomesan은 요프가와홍충(橫川吸虫), 진촌충(廣節製頭線虫), 유구조충, 부구조충에 효과 있다. Niclofolan(Bilevon)은 간디스토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하루 체중 kg당 1.0-2.6mg을 2-3일 계속 복용하면 편

가장 理想的인 驅虫劑는 여러가지 기생충에 모두 들고 또 값도 싸야—새 開發品中엔 理想型은 없어



다.

원충류(原虫類)에 좋은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약으로 Metronidazole(Flagyl)은 이질아메바의 남자형, 영양형에 공통적으로 우수한 효과 있는 이상적 아메바증 치료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400mg씩을 하루에 3번 6-10일간 계속 복용하면 되며 부작용은 별로 없다. 아메바증 이외에 질트리코모나스 감염에도 효과가 좋으며 체중 kg당 20mg을 5일간 투여로 개개 치유되며 람부리아 편모충 감염증에도 쓰인다. Fasigyn(Tinidazole)은 질트리코모나스증에 0일 150mg씩 3회 5일간 경구 복용하면 약 90%의 치료 효과를 낼 수 있으며 경미한 위장 장애가 있으나 오심, 구토등 부작용은 없다. Plasmoquin (Pamaquine, Primaquine)은 마라리아 원충 특히 포자가 인체 조직세포내에 이미 침입했을

때 사용한다. Pyrimethamine(Daraprim)은 마라리아 원충 특히 적혈구 외 발육기에 유효하다. 즉 모기로부터 인체에 들어온 마라리아 포자가 간장 실질 세포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 하루 용량은 25gm

이때 sulfadiazine과 같이 복용하면 예방효과도 좋다 또한 톡소프라스마감염병도「필자」제와 병용하면 효과가 좋다.

<필자=연세의대  
기생충학교실>

● 우수계 ●

무엇을 헤이세요

남자는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무언가 헤이고 있었다. 여자는 차를 마시다 말고 이상해서 물었다.  
「아니, 선생님. 무엇을 세고 계세요」  
「아가씨와 같은 것들요.」  
「어머나 그럼 선생님이도 생리가 있으세요?」

불이 났다

「불이야」  
「어디냐」  
「세무서다」  
「봐 뉘」

피 해 자

「여보세요. 경찰서죠? 여기 S여자대학 기숙사 인데요. 도둑이 들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남자 아니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거기를 어떻게 들어 갔단 말이지요?」  
「네. 실은 제가 도둑인데, 여기서 잠혀 있어서 구해달란 얘기인데요.」

개 심(改心)

시골서 올라 온 할머니를 손주가 모시고 영화관 옆 갔다. 2본동시상영(二本同時上映) 극장이었는데, 콩고류계도 두 영화 주인공이 모두 같은 배우 이었다. 그런데 앞서의 것은 악역(惡役)으로 출연했고, 나중의 것에선 선량한 사람으로 출연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손주에게 말했다.  
「그사람 참 빨리도 개심하는군」